

# NEWS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 전남도,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 청신호

### 여름철 코로나 유행 대비 예방접종 6월말까지 연장

전남도는 30일까지였던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년간(2022~2024년) 코로나19 발생이 겨울철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해 사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시작된 2024~2025 절기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다.

전남도 예방접종률은 22일 현재 55.3%(전국 평균 47.4%)로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여전히 고위험군 2명 중 1명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이다.

접종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충분히 형성되는 기간(4주)을 고려해 기급적 빠른 시일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

5월 1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접종 가능 의료기관이 변경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접종 가능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한다. 이현규 기자 gnnews1@

### ▶1면 '광천터미널'서 계속

하지만 신세계 측은 이날 광주시의 입장에 대해 '사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 측은 광주시의 '주상복합시설 주거 규모 516세대'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공영장 조성 축소 등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 측은 또 주상복합의 경우, 현재 5만평에 100~70평형대의 대형 평형 516세대를 조성키로 했지만 추후 부동산 상황을 지켜보며 40~50평형대의 중형세대 800~1000세대를 짓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신세계 관계자는 "광주시 입장을 확인한만큼 전체 사업 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충실한 계획안을 만들어 광주시의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성을 확보하려면 주거 시설 건축 연면적을 당초 16만5000㎡(5만평)에서 25만4100㎡(7만7000평)로 늘려야 하는데 16만5000㎡로 못 박을 경우 터미널시설을 현대화하는 개발사업 외에 광주시의 협의해온 공영장과 병행, 교육시설 조성 등은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민간기업·녹색에너지연구원 등 컨소시엄 '해상풍력 지반조사 기술 개발' 공모 선정

민간자본 20조원이 투입되는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가 구축되는 전남이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해상풍력 선도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 및 기반기술 개발' 공모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현대건설, 남진건설 등 민간기업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포함 총 189억 원을 확보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해양의 강한 바람과 조류 등에도 안정적으로 지탱할 기초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지반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 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관리 안정성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의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임에도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족으로 외국에 의존해 외화 유출과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 자립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약 1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유의파고 2m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조사 기술, 물리탐사·현장 시험·실내시험 통합분석 기술, 지반정보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표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전주기 관리체계와 국제 표준 기반의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 기술 자립을 이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약 1조 1000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 신안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3.2GW 규모인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체 10개 단지 조성 시 단일 단지 기준으로 아시아·태평양 최대 규모이며, 민자 20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비 용량 기준으로 원전 3기에 해당한다.

전남은 지난 3월 해상풍력 특별법과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통과로 해상풍력 선도지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의회, 화순적벽 사업현장 방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29일 화순군 적벽 일원에서 추진 중인 '화순적벽 생태관광 광국영소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 광주시, 금융취약계층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강화

### 채무회리행복상담센터→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변경 심층 상담·서민 대출·교육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

광주시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충 해결을 위해 운영 중인 '채무회리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금융복지조례의 시행에 따라 기존 '채무회리행복상담센터'를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민들의 금융문제 해결과 자립을 돕기 위한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센터 명칭을 '금융복지지원센터'로 변경함과 동시에 채무상담 기능을 넘어 심층상담, 서민대출,

관련 기관 연계 금융교육까지 아우르는 통합 금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등 센터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먼저 채무 상담 기능을 넘어 개인채무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해 심층상담을 제공하고, 개인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과 상담 이후 관리도 지속한다.

또 매주 목요일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직원을 센터에 상주시켜 미소금융, 햇살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신청받아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광주신용보증재단 전산망을 연계해 보증상담예약 등

도 지원한다. 금융교육 역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광주고용복지+센터 등과 협업해 학생, 노인·장애인, 취약계층, 공공기관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사업 홍보 및 정책 공유를 통해 실질적 지원방안을 지속해 발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30일 금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찾아가는 복합 지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이동상담실을 운영해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을 제공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금융상담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상담을 지원하는 등 기관 간 양방향 상담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전남 배치 공중보건의 15년간 62% 감소

2010년 474명서 올해 179명 불과...대응 방안 마련 논의

전남도가 의료취약지 1차의료로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 수 감소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에 배치된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지난 2010년 474명에서 2015년 368명, 2020년 331명, 올해 179명으로 지난 15년간 62.2%가 감소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 원인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의 의대 입학 증가, 현역병(18개월)의 2배인 공중보건의사(36개월) 복무기간 부담 등으로 의대 재학 중 현역 군 복무를 마치는 의과대학생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회의에는 전남도 의과 공중보건의사 대표, 전남도지사회장, 취약지병원 대

표원장, 지방의료원장 등 지역의료계와 공중보건의료기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해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대안 정책 과제 의견을 논의했다.

전이양 원도 대성병원장은 "농어촌 인구감소에 따라 면단위 보건지소도 거점형으로 통합하고, 공중보건의사도 효율적인 배치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정리해서 향후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정부의 정책과제로 건의할 계획이다"며 "지역내 의료공백으로 도민이 의료서비스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 도, 여수산단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

플랜트사업 발주 급감...노동자 일감 고갈

전남도는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을 지난 28일 심의·의결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석유화학 업종의 고용위기는 주요 대기업의 영업실적 악화 플랜트 건설사업 발주액이 대폭 감소하면서, 여수지역 근로자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노동자의 일감이 고갈돼 고용 위기 상황으로 진입했다.

이에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 석유화학 고용위기대응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노·사·민·정 분야별 관계자와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 지정 신청서는 일용 노동자의 일자리 위기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 임시적 생계비 지원 등 일용 근로자의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근로자는 훈련연장 급여, 직업훈련비지원 확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등을 지원받게 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남도는 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여수 노동시장의 고용 특수성을 반영해 일용근로자 감소 현황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전남-곡성 모듈러 주택단지 / 휴인 설계·시공

## 대한민국 탄소중립에 바탕 서겠습니다

휴인주식회사  
HUIN Co., Ltd

문의 및 상담 Tel. 061-271-5777 / 062-945-0036~7

## 공학목재(구조용 집성목재) 제조·공급하는 지역기업입니다.

국내 KS 인증서  
(구조용집성목재)

국내 신기술 인증서  
(합판과 CLT)

내화구조 인증서  
(기둥, 벽체, 바닥)

- 목조건축 상담 및 설계지원
- 건축구조재(CLT) 신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내화구조 1시간, 2시간 인증
- 구조용 집성목재 생산·시공(KS인증 보유)

집성목재 생산 및 납품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골조

화순 - 치유센터 목구조 설계지원 및 시공

www.huin.kr